

자료 제공 : 2022. 11. 29.(화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

안전지원과장	안형준	2133-8515
안전지원팀장	권우정	2133-8517
담 당 자	주민희	2133-8518
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□ 쪽수 : 2쪽

서울전역 한파특보 발효... 서울시, 한파 피해 최소화 노력

- 11월 29일(화) 18시 한파경보 발령에 따라 종합지원상황실 즉시 가동
- 노숙인, 쪽방주민,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 조치 시행
- 서울시 사회관계망(SNS),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활용, 시민 행동요령 신속 전파

- 기상청이 11월 29일 오후 6시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를 발령함에 따라, 서울시는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 -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,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. 2021년의 경우 한파특보는 총 14일(한파주의보 10일, 한파경보 4일) 발효된 바 있다.
-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, 생활지원반, 시설 복구반 등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.
 -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, 피해발생현황,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활동관리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.

- 서울시는 사회관계망(SNS)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하였다. 또한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안내하였다.
- 특히, 모바일 ‘서울안전앱’을 통해 한파를 비롯한 각종 재난시 시민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있다. ‘서울안전앱’은 구글플레이,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
- 서울시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와 미수신시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, 거리노숙인 상담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인력을 확대하고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. 또한 필요시 겨울철 난방용품 등 구호물품도 지급할 예정이다.
-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“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온 만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해 시민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며, 시민여러분들도 강추위에 대비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부탁드립니다.”고 말했다.